# 태평·계림극장 추억속으로

## 50여년간 광주시민들과 애환 함께
## 불황·멀티플렉스 공세에 최근 철거

50여년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진 태평극장의 철거 직전 모습.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추억의 단관 극장 역사 속으로….'

50여년 동안 영화를 통해 시민들과 울고 웃었던 태평극장과 계림극장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지난 1957년 문을 연 태평극장과 이듬해인 1958년 개관한 계림극장은 지난 2003년과 2001년부터 영화 상영을 중단한 상태였지만 최근 건물이 완전히 철거되면서 두 극장은 이제 시민들의 추억 속에만 남게 됐다.

한때 영화 관람객으로 인산인해를 이뤘던 두 극장은 1970년대 TV 보급이 확대되고, 다양한 위락시설이 들어서면서 고전하기 시작했다. 특히 1999년부터 대형 멀티플렉스가 들어서면서 쇠락의 길에 접어들어야만 했다.

지난 1957년 재개봉관으로 문을 연 태평극장은 일제시대부터 유동인구가 많았고 충장로 상권이 영향을 미치는 광주천변에 위치, 오랜 기간 호황을 누렸다. 하지만 영화계 전반적인 불황과 1970년대 대인동에 문을 연 광주시외버스터미널의 영향으로 상권이 변화하면서 하향곡선을 긋기 시작했다.

태평극장은 1990년대 초 리모델링을 통해 재도약을 꿈꿨지만 멀티플렉스의 공세로 2003년 결국 문을 닫았다. 이후 압류와 경매 과정을 거쳤고 지난 2005년 동구청이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극장 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이었지만 이 역시 무산됐었다.

현재 소유주는 서울에서 호텔 등을 운영하고 있는 특급종합건설 주식회사. 업체 측은 "아직 극장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결정된 사항은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1958년 문을 연 계림극장 역시 최근 철거 작업을 마무리 했다. 계림극장은 개관 후 리모델링을 통해 변신을 시도, '타이타닉' 등 흥행작을 상영하기도 했지만 지난 2001년 폐업한 상태였다.

현재 계림극장은 동명동 재개발 지구에 포함된 상태다. 소유주인 지역부동산업체는 극장 부지를 당분간 주차장 등으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동구청의 요청에 따라 10월 열리는 광주충장로축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다른 단관 극장인 아세아극장 역시 조만간 철거될 것으로 보인다. 1968년 문을 연 아세아극장의 소유권은 지역 건설업체에 넘어갔으며 극장을 포함한 임동 일대가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됐다.

그밖에 2003년 1월말 폐업 신고를 한 현대극장(1961년 개관)은 2004년 라이브 전용 공연장 '맥스씨어터'로 변신했으나 결국 문을 닫았으며 현재 활용방안을 모색중이지만 여의치 않은 상태다.

한편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극장은 1910년대 일본 자본으로 세워진 제국관이다. 제국관은 해방 후 동방극장으로 이름을 바꿨고, 무등시네마(9개관)로 역사가 이어지고 있다.

또 광주 최초의 민족자본을 투입, 1935년 개관한 광주극장은 현재 예술영화전용관으로 지역에서 유일하게 단관극장의 명맥을 잇고 있다. 그밖에 1960년 개관한 제일극장은 처음으로 70㎜ 대형영사기를 설치, 호응을 얻었으며 1983년 광주세무서 앞에 소극장 성도극장이 문을 연 이후 한때 30여 소극장이 성업하며 큰 인기를 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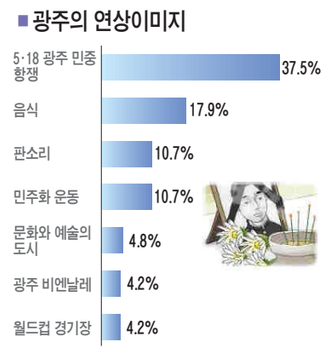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 거주 외국인에 광주 이미지 물었더니

# 1위는 '5·18' 2위는 '음식'

〈37.5%〉 〈17.9%〉

## '문화·예술도시'는 4.8% 불과…78% "생활 만족"




광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광주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로 5·18광주민중항쟁과 음식, 판소리 등을 꼽았다.

이들의 광주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려움으로는 '언어소통의 한계'를, 개선돼야 할 도시 기능으로는 '교통기능'을 가장 먼저 들었다.

광주발전연구원 민인철 부연구위원이 28일 정기간행물인 '포커스(FOCUS) 광주'를 통해 발표한 연구과제 '광주 거주 외국인의 광주 이미지 및 시사점'의 핵심내용이다.

민 연구위원이 지난 6월 7일부터 한 달간 광주거주 외국인 168명(경제활동 외국인 89명, 결혼이민자 79명)을 대상으로 개별 면접 조사한 결과 광주의 연상 이미지로 37.5%가 '5·18광주민중항쟁'을 꼽아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음식'(17.9%), '판소리'와 '민주화운동'이 각각 10.7% 순이었다. '문화·예술의 도시'는 4.8%, '광주비엔날레'와 '월드컵경기장'은 각각 4.2%에 그쳤다.

다른 도시와 비교해 광주가 갖는 강점으로는 35.1%가 '자연환경'을 꼽았고 '음식'(19.6%)과 '문화와 예술이 발전된 도시'(16.1%)라는 응답이 그 뒤를 이었다.

단점으로는 '비싼 물가'(29.2%)와 '시민질서의식 부족'(17.9%), '교통불편'(16.7%), '편의시설 부족'(14.9%) 등을 지적했다.

광주 생활 만족도에 대해서는 10명 중 8명에 가까운 78.6%가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보통이다'는 의견은 21.4%였다. 광주 생활 적응시 애로사항은 '의사소통의 한계'가 42.3%로 가장 많았고, '외국인 편견 및 차별'(14.3%)이 뒤를 이었다.

또 광주 거주 외국인의 지난 1년간 월 평균 광주 관광·문화체험 횟수는 '한 번 미만'이 과반수(51.2%)에 달해 관광지로서 선호도가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 이미지에 맞는 축제로는 45.2%가 '민주·인권·평화를 상징하는 인권축제'를 꼽아 가장 많았다.

광주 거주 전·후 광주에 대한 이미지 변화는 경제활동 외국인의 경우 64.0%에서 80.9%로, 결혼이민자는 55.7%에서 65.8%로 모두 '좋아졌다'는 의견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민 연구위원은 "외국인들은 자신들이 광주에 대해 가진 이미지를 타 지역 외국인들에게 전달하는 정보 매개자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이들이 광주 관광지를 보다 자주 찾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관광서비스 체계 개선과 인권축제 등의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광주천 여덟 동네 이야기'

## 문화자산 엮은 책 출간

광주의 젖줄인 광주천 물길과 그 주변에 숨겨진 유·무형의 문화자산을 이야기로 엮은 책이 발간됐다.

광주시가 28일 발간한 '광주천, 그 곁에 깃든 여덟 동네 이야기'(242쪽)에는 광주천의 유래와 함께 학동, 방림동, 금동, 양림동 등 주변 8개 동네에 얽힌 사연들이 녹아있다.

신문화도입 시기의 생활환경, 문화예술, 산업, 인물을 비롯 각 동네가 간직한 추억 속 풍경들을 9개 분야, 37개 테마로 나눠 전하고 있다.

박선홍 광주시 문화재위원과 차종순 호남신학대 총장, 김경수 향토지리연구소 소장, 조광철 광주시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사 등이 집필을 맡아 완성도를 더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 中기업 광주에 2천만달러 투자키로

## 광주시 투자 유치 교류단 선전시 투자환경 설명회

중화권 투자유치에 나선 광주시 방문단이 28일 중국 경제특구인 선전시에서 투자환경설명회를 갖고 중국 기업들로부터 2천만달러 상당의 투자 약속을 받아냈다.

지난 26일부터 중국을 방문 중인 박광태 광주시장을 단장으로 한 '2008 광주시 중화권 투자유치 및 문화관광 교류단'은 이날 중국 개혁·개방의 상징인 선전시 선샤인호텔에서 투자환경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선전시와 지역 최대 부동산개발 투자회사인 완커(万科)부동산그룹 관계자 등 50여명의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박 시장은 변화된 광주시의 경제환경과 비전을 설명하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어등산관광단지 개발 프로젝트,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 시의 중점 육성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했다.

투자설명회 직후 최근 광주 평동산단에 입주키로 한 (주)자원메디칼(대표이사 최오진)은 중국의 이징(億晶)사, 탑레이쏠라사와 태양광 모듈과 셀 생산을 위해 각각 1천만달러씩 모두 2천만달러 상당의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들 중국 기업의 투자가 현실화되면 고용창출을 물론 광주시의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도 가속도를 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광주영상예술센터에 입주한 (주)메타파이브 아트사이언스 앤 매직사는 홍콩의 옥터버픽쳐스사와 영화·방송콘텐츠에 사용되는 CGI(컴퓨터형성이미지) 공동 제작과 전문인력 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상호협력키로 하는 MOU를 체결했다.

박 시장은 또 선전시 한일중투자유한공사 시더원(施德文) 사장을 해외명예투자유치 자문관으로 위촉했다. 해외명예투자유치 자문관은 광주시의 해외투자유치활동 지원 및 투자홍보 활동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박 시장 등은 29일엔 홍콩을 방문해 시장개척활동을 펼친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